

Economy Brief

워시 의장에게 여유를 준 6월 미국 고용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신규 고용(No Hire)도 실업 증가(No Fire)도 없는 미묘한 균형이 유지 중인 미국 고용시장
6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확산되던 미 연준의 매파적 분위기 다소 진정되는 동시에 케빈 워시 의장이 다소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됨
6월 고용지표 영향으로 달러 강세 현상도 주춤하면서 슈퍼 엔저 현상도 한 풀 꺾일 전망

신규 고용 증가도 실업 증가도 없는 미 고용시장: 고용지표로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연내 금리인상

6월 미국 고용시장은 미지근했다. 6월 비농업 일자리수는 전달보다 5.7만명 증가하는데 그쳐 시장 예상치인 11.3만명을 크게 하회했다. 더욱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4월과 5월 일자리수도 하향 조정되었다. 4월 비농업 일자리수는 기존 17.9만명에서 14.8만명으로 5월 비농업 일자리수 역시 17.2만명에서 12.9만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기존 수치보다 합산으로 7.4만명 감소했다. 6월 일자리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다소 의외다. 월드컵 특수로 레저 및 접객업종의 일자리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발표된 수치를 보면 전월대비 6.1만명 급감했다. 월드컵 특수가 고용시장에 선반영되었는지 7월 일자리에 반영될지를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일자리수 증가폭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을 보였지만 6월 실업률은 4.2%로 전월대비 0.1%p 하락하는 다소는 상반된 모습 모습을 보였다. 경제활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실업 상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건수도 시장 예상치 21.8만건을 소폭 하회하는 21.5만건을 보였다. 일자리수 증가는 다소 미진했지만 실업이 늘어나지 않고 있음이다.

당사가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 즉 '신규 고용(No Hire)도 실업 증가(No Fire)도 없는 미묘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지표 중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 및 전년대비 각각 0.3%와 3.5%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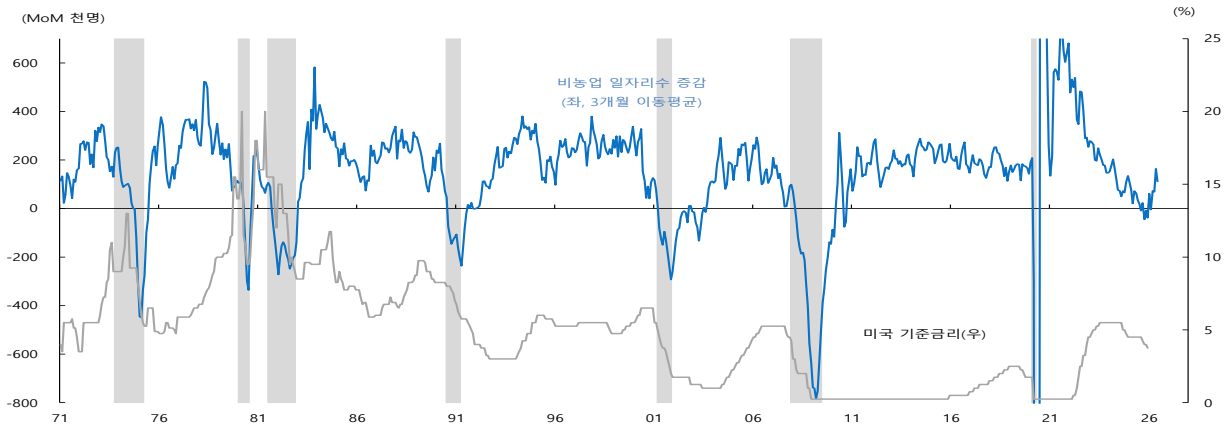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6월 일자리수가 기대치는 밑돌았지만 미국 고용시장 상황은 경기와 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 중인 유가 흐름과 함께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즉 디스인플레이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당사가 3분기 전망에서 강조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는 6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확산되던 미 연준의 매파적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는 14일 발표될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가 하락 등으로 둔화될 것 경우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 강화 속에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확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취임하자마자 금리인상 압박에 직면했던 케빈 워시 의장이 다소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6월 고용지표, 달러 강세 현상도 주춤해질 듯: 슈퍼 엔저 현상도 한 풀 꺾일 듯

미지근한 고용지표 영향은 당장 달러화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6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달러 강세 분위기가 강화되었지만 6월 고용지표는 이러한 달러 강세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무엇보다 40년만에 162엔을 돌파했던 달러-엔 환율의 상승세가 한 풀 꺾일 것이다. 실제로 미국 6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달러-엔 환율이 161엔 초반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 고용지표 영향인지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 영향이 불분명하지만 가파른 엔 약세 흐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엔 약세 방어 의지를 감안하면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추가 개입에 나설 수 있어 달러-엔 환율이 다시 160엔대를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슈퍼 엔저 현상이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달러-원 환율도 일단 단기 하락 압력에 노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외국인 국내 주식순매도 확대라는 수급요인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 달러-원 환율 낙폭이 제한될 수 있지만 최근 원과 엔간 동조화 현상을 고려할 때 달러-엔 환율이 추가 하락 시 달러-원 환율 하락폭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특히, 6월 미국 소비자물가 결과는 7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달러-원 환율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그림1. 미지근한 6월 일자리수 증가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 부담이 다소 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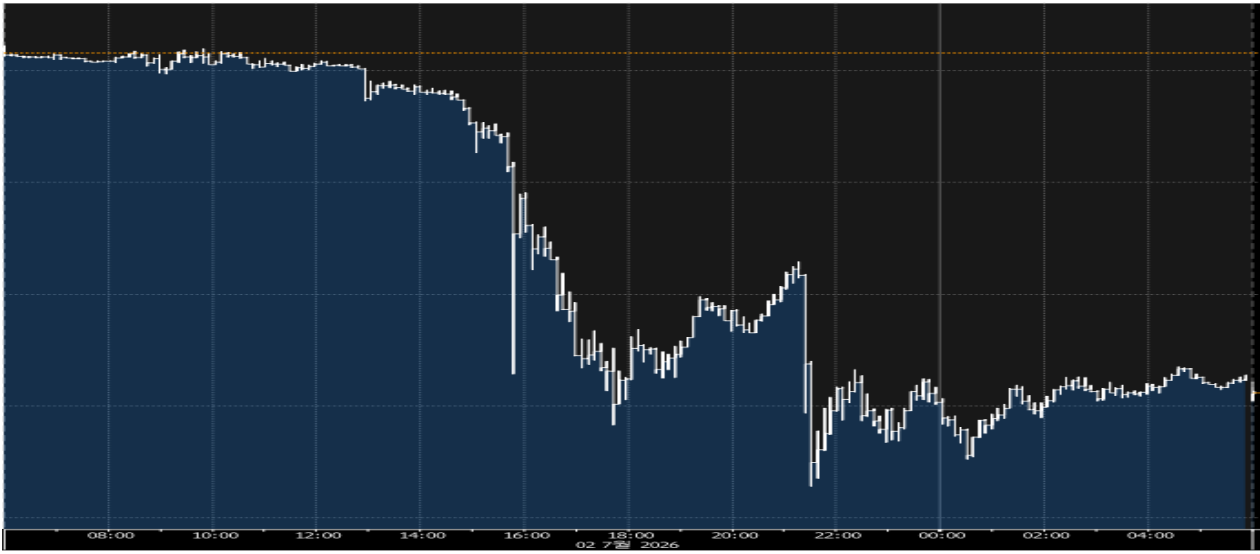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표. 미국 비농업 일자리수 및 업종별 증감 추이

(MoM 천명)		25.11월	12월	2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6월 평균
비농업		41	-17	160	-156	214	148	129	57	137
	민간	72	-7	180	-148	202	150	97	49	51
	재화	25	-21	45	-21	33	6	7	10	46
	서비스	16	4	115	-135	181	142	122	47	44
	건설	36	-7	45	-21	15	3	6	11	10
	제조업	-10	-13	2	1	15	-1	-2	3	3
	도매	-6	-6	2	8	-2	1	4	2	3
	소매	-1	-24	13	0	10	24	8	-8	8
	운수,창고	-59	-5	23	-46	25	39	4	2	8
	유틸리티	2	1	0	2	-1	1	1	-1	0
	정보	-5	-6	-27	-23	1	-6	-4	-9	-11
	금융	1	1	-39	2	-17	-6	-22	0	-14
	전문직	56	-19	36	4	28	20	11	36	23
	교육 및 헬스	56	38	119	-49	95	67	45	69	58
	레저 등	-12	25	5	-31	44	-7	40	-61	-2
	기타 서비스	16	8	3	6	-14	11	3	8	3
	정부	-31	-10	-20	-8	12	-2	32	8	4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6월 미 고용지표와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 여파로 달러-엔 환율이 큰 폭 하락(7월 2일 장중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